

# 제프리 니하우스 박사, 성경 신학, 세션 1, 아담의 언약, 파트 1

© 2024 Jeffrey Niehau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성경 신학에 대한 강의를 하는 제프리 니하우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 아담의 언약, 1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제프 니하우스입니다. 저는 고든-콘웰 신학교에서 구약과 성경 신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언약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각 언약을 살펴보고, 그 본질적인 특성과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이 타락 이전과 이후의 역사를 통해 주님께서 인간에게 행하신 일의 전반적인 패턴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제시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글썄요, 이것이 여기서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있습니다.

충분히 큰 것 같나요? 이걸 제 성경 신학 서론의 마지막에 있는 한 페이지인데, 첫 번째 권이고, 제안된 여러 언약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 몇몇은 아주 최근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신학이라고 불리는 고전적인 것을 사람들은 매우 느슨하게 사용하지만, 언약 신학은 고전적으로 17세기에 시작되었고,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표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아담 언약이 있었고, 그것은 행위의 언약이었고, 그 생각은 모든 언약이 결국 행위를 수반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범주가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을 보시게 되면, 모든 언약은 은혜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개념은 그것이 선물이고 주님이 주지 않으시면 신-인간의 언약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행위의 언약인가? 왜 은혜의 언약인가? 이 모델에 따르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그의 아내는 일을 할 수 있었고, 언약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행위의 언약이라고 불립니다.

타락 후에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언약적 요구 사항을 완전히 성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언약들은 은혜 때문에 존재하고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 언약 이후의 모든 성경적 언약들은 하나로 묶여 은혜의 언약이라고 불립니다.

이제, 용어 사용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대 세계에서 아무도 관련이 있지만 서로 다른 언약을 한데 묶어 하나의 언약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단어가 사용된 방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개념은 고대 근동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노아 언약이 일반 은혜 언약이며, 사실 아담 언약을 갱신한 것이지만, 은혜 언약 체계는 그것을 아브라함 언약에서 새 언약까지 묶어서 모두 특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은혜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언약을 의미하고, 아담과 노아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들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예를 들어 아담의 언약과 노아의 언약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변성하고 번식하고 있으며, 우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구를 채우고, 정복하고, 죽고 있습니다. 이는 아담 언약에 대한 불순종에서 비롯된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반면 아브라함 언약은 지구가 그와 특별한 언약을 맺을 때 시작되며, 그것은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담과 노아의 언약은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그저 지구를 계속 움직이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구원 프로그램이 그 행성에서 이루어지고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것의 시작이고, 새로운 언약은 그것의 정점입니다. 하지만 이 고전적인 17세기 도식은 그 모든 것을 가립니다.

그리고 모든 자선과 정직함을 가지고 이해해야 할 것은 17세기에 사람들은 고대 근동의 계약이나 조약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이 신이 가진 프로그램을 표현하고 재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고,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나쁘지 않은 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안된 계획은 존 월튼이 그의 책 *The Covenant*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월튼은 노아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과 새 언약과 다르다는 것을 올바르게 깨닫고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노아 언약은 일반 은혜 언약인 반면 다른 언약은 특별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17세기의 고전적 언약 신학자들이 한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언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서로 관련이 있지만 서로 다른 여러 언약을 포괄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특별 은혜 언약을 취하여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저는 이것이 용어를 잘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고대 근동 사람이나 성경 속 사람이 이해했을 방식으로 언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이해했던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의 재구성에서 아담 언약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담 언약이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소수의 학자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덤브렐 이 제안했고, 스콧 헤이프 만도 이 관점을 취했습니다. 즉, 모든 언약은 하나의 언약 관계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의 언약 관계가 있다면, 하나의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실제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구별을 모호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그것은 고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지 하나를 암시할 뿐이지만,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언약이 하나의 언약 관계를 구현한다고 한다면, 모세 언약 하에서 사람이 주님과 맺은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지켜야 할 모든 규칙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동물을 데려와 성전에서 도살해야 했고, 이런 식으로 계속되었습니다.

글쎄요, 히브리서에서 말했듯이,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단지 예표론적일 뿐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제사를 드릴 성전도 없고, 제사장직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생제물이고, 완전히 충분한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언약 하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성령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 언약 하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는 구조적으로나 역동적으로, 예를 들어 모세 언약 하에서 사람이 맺었던 관계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따라서 한 가지 언약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제안할까요? 저는 고대 근동과 성경에서 언약 개념이 사용된 방식에 충실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여기서 제안합니다.

아담의 언약은 그 존재에 대해 우리가 논쟁할 것이고, 노아의 언약은 함께 구성되는데, 둘 다 일반 은혜 언약입니다. 노아가 아담의 언약을 갱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합치는 좋은 방법은 하나의 법적 패키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날 세상의 모든 사람은 신이 있다고 생각하든 그렇지 않든, 이 두 언약 아래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의 좋은 예는 성경에서 나중에 나오는 모세 언약입니다. 사실, 주님은 시나이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는 신명기에서 모압 평야에서 다음 세대와 그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래서 언약, 모세 언약, 시나이 언약, 그리고 그 갱신인 모압 언약, 신명기라고 부르죠, 함께 하나의 법적 패키지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 신자에게 묻는다면, 글쎄요, 그는 자신이 모세 언약 아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묻는다면, 글썬요, 당신은 시나이 언약 아래 있습니까? 아니면 모압 언약 아래 있습니까? 그는 생각할 것입니다. 글썬요,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것은 하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약성서는 이것들을 합쳐서 *nomos*, 즉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좋은 예이고, 저는 그것이 아담과 노아의 언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것의 많은 부분이 물론 히타이트 조약 양식과 그들의 관행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덧붙여야겠습니다.

히타이트 황제가 그의 가신이었던 왕의 아들과 언약, 조약을 갱신했을 때, 그 아들은 새로운 가신이 되었고, 그 두 가지를 합치면, 종주권자, 황제, 히타이트 왕이 가신 왕과 맺었던 조약과 그가 지금 맺고 있는 조약이 합쳐져서, 죽은 왕의 아들과 그 조약을 갱신하는 것이고, 그 두 조약이 합쳐져서 하나의 법적 패키지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히타이트인들이 이것을 표현한 방식은 당신의 아버지가 나와 맺은 거래였고, 당신이 지금 나와 맺은 거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모든 것의 간략한 요약일 뿐입니다.

그러면 특별 은혜 언약은 어떨까요? 글썬요, 그것들은 매우 상호 연관되어 있지만,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모세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별 은혜 또는 계시 언약은 네 가지가 있고,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은 사람들이 이해했듯이, 그리고 우리가 보고 이야기할 것처럼,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의 예고나 약속, 기대를 구체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이 더 이상 언약으로 기능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에서 받아들여지고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그것들은 새 언약에서 계속 살아 있지만, 그 중 어느 것도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그 표징은 할례이고, 우리는 더 이상 언약 표징으로 할례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언약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표징이 폐지되었다면, 그 언약은 더 이상 기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세 언약이 더 이상 언약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이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은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언약은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만왕의 왕이시며,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른 왕은 없을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 곧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스케치입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예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담의 언약 또는 창조 언약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간단히 요약하겠지만, 우리가 사용한 아이디어 중 일부를 서론적으로 이야기한 바로 그 말을 여러분 앞에 놓으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은 행위의 언약이었는데, 그 언약에서 생명은 아담에게 약속되었고, 그 안에서 그의 후손에게도 완전하고 개인적인 순종의 조건으로 약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타락하여 그 언약으로 인해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자, 주님은 두 번째 언약을 맺으셨는데, 일반적으로 은혜의 언약이라고 불리는 언약으로,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제공하시고, 그들에게 그분을 믿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많은 진실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적했듯이, 특성화,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인데, 이는 고대 세계나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방식과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존 월튼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언약, 즉 우리를 위한 신-인간 언약을 식별하기 위해 성경 본문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노아 시대의 첫 번째 언약을 발견합니다. 이제

, 잠시 후에 주석에서 언급하겠지만, 여기에는 학자들이 때때로 저지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그 용어가 없다면, 그 사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지속 가능한 관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는 아담의 언약은 언약이라고 불리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매우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언약이 없습니다. 그 다음 요점은 노아와의 언약이 분명히 신과 인간 사이의 합의를 나타내지만, 실제로 노아의 서사에서 언약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신의 특별 계시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했듯이, 우리는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은 특별 은혜가 아니라 일반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Anthony Herkimer는 그의 책인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책에서, 아주 훌륭한 책인데, 아담의 언약에 관해서, 성경은 이 합의를 언약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누군가는 호세아 6-7은 어떻습니까? 아담처럼 그들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사실 모호합니다. 결국 히브리어에서 아담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인간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의미한다면 노아의 언약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 24장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듯합니다. 곧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 용어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 사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신을 어느 쪽도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삼위일체 신입니다.

저는 성경이 노아를 선지자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가 하는 모든 일, 즉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명령을 전달하고 언약을 중재한다는 사실에서 그가 선지자라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따라서 허키머에 따르면, 여기서 또 다른 요점은 창세기의 이 초기 장들에 언약

서약이나 비준 의식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 언약도 마찬가지인데, 여전히 언약이라고 불립니다.

허키머는 이를 인식하고, 성경이 분명히 이 신성한 은혜의 부여, 즉 노아 언약을 언약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언약 서약이나 언약 비준에 대한 기록이 없더라도 우리도 그것을 언약이라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살펴보겠지만, 공통 은혜 언약에 언약 비준이 없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담 언약에 반대하는 허키머의 주요 요점입니다. 그렇다면 노아 언약이 맹세나 비준 없이 언약이라고 불릴 수 있다면, 아담 언약도 맹세나 비준 없이 언약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 아담 언약에 대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제가 시나이에서 처음으로 신에게 제안한 것이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해해야 합니다. 기원전 2천년 조약 양식은 히타이트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모세가 신-인간 언약을 표현하는 데 사용했고, 모세보다 훨씬 늦은 다윗 언약에서도 본질적인 내용이 나타납니다.

기원전 1천년 히타이트, 오히려 조약 형태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해야겠습니다. 역사적 서론이 없습니다. 축복이 없고, 당시의 통치 세력, 당시의 위대한 제국은 아시리아 제국이었고, 한 명 이상의 학자는 최근 역사의 나치와 비교할 수 있는 아시리아인들이 절대적인 잔혹함으로 통치하면서 반항하는 가신들을 재정복하고, 산 채로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성벽에 걸고, 눈을 멀게 하고, 손을 잘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조약을 따르는 사람에게 축복을 약속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역사적 서론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서론과 축복은 동기적 요소입니다. 역사적 서론은 종주국이 가신을 위해 행한 좋은 일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며, 따라서 가신은 조약을 따라야 합니다. 축복은 가신이 복종하면 신이 가신을 위해 행할 좋은 일이며, 따라서 다시 가신은 조약을 따라야 합니다.



그 생각은 1천년 동안 아시리아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은 그런 것들을 약속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 상기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든 구약성경의 성경적 신-인간 계약은 모두 평행하며 사용 중이었던 2천년 조약 형태의 필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연히, 이집트의 왕자로 자란 모세는 외교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 형식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히타이트와 이집트는 그 기간 동안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살펴보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이 2천년 조약의 필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약에 있는 칭호는 종주권자 또는 황제, 즉 위대한 왕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습니까?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읽습니다. 글썬요, 왕권에 대한 주장처럼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신이 창조신이라면 그는 모든 것의 왕이며 모든 권위는 그에게서 나온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따라서 모세 시대나 그 이후에 창세기 1장 1절을 읽은 사람이라면 이 엘로힘, 즉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것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는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왕입니다. 그는 종주권자입니다. 그는 황제입니다.

역사적 서론은 조약에서 위대한 왕의 말로 표현됩니다. 그럼 그게 무슨 일일까요? 글썬요, 요점은 히타이트 조약이 가신의 삶을 구조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조약은 가신이 살아야 할 모든 조건과 가신이 따라야 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주님이, 그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위대한 왕으로서, 가신, 남자, 여자가 살게 될 현실을 문자 그대로 구조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평행선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 조약에는 가신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규정이 있고, 창세기 1장 28절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퇴위가 있었습니다. 조약에는 정기적인 독서가 있었습니다. 요점은 각 왕이 조약 사본을 한 부씩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왕은 자신의 신들의 사원에 자신의 사본을 보관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신교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왕도 실수로 조약을 어기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독서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십계명에서 이것을 얻습니다. 그것은 장막에 보관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언약이 갱신될 때, 신명기 17장에서, 우리는 미래의 왕이 이것을 스스로 사본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읽고 실수로 언약을 어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기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서면 조약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이야기와 다른 모든 성경적 언약 이야기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조약 문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것은 신명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은 주께서 맺으신 언약을 구체화하고 표현하는 일련의 성경적 서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언약적으로 구조화하고 그 안에 남자와 여자를 두신 것을 분명히 하는 서사적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시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만 물론, 이러한 서사가 말하자면 언약을 봉헌한다는 것은 이해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하 7장은 다윗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는 거기서 결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글썬요, 이 언약에도 증인이 있었습니다.

조약에서, 조약이 가신에 의해 파기되면 신들이 언약을 어긴 자, 조약을 어긴 자에게 벌을 내릴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신 일에 대한 증인이 되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보고, 그것이 매우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는 남자와 여자를 축복하고, 그들에게 이러한 규정을 줍니다.

그는 일곱째 날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2:3. 창세기 2:17b에는 저주 요소도 있는데, 아담에게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간단히 명확히 하기 위해 창세기 1장은 전체적인 관점을 제공합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 27절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아마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읽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서사에서 이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설명을 듣고 나서 그 중 일부 측면을 확대해서 봅니다.

이 모든 것은 창세기 2장에서 읽은 내용이 창세기 1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담 언약이라고 부르는 관계의 본질에 대한 추가적인 서사적 탐구 또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2:17에서 명령과 명령을 읽거나 정원에 있는 어떤 나무에서 만든 허가와 명령을 읽을 때, 그러나 이 나무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거래의 일부로

이해됩니다. 그것은 이 일에서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의 일부이며, 창세기 1장이나 2장이나 그 어느 곳에서도 언약이라고 불리지 않지만, 고대 근동 조약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요소 또는 핵심 요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정하게 생각하려면, 이 서사 속의 요소들이 언약 관계를 표현한다는 데 동의할 의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언약 관계라고 불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만약 누군가가 그것을 언약이라고 부르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지 모르겠어요. 계약의 모든 본질이 있거든요. 모든 요소가 있어요. 여기서 또 다른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권에서 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모든 신-인간 계약은 히타이트 조약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 저자들은 법적 형태로 이해될 수 있는 형식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의 창세기를 보는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말장난을 의도한 것이 아니며, 그것은 모든 신-인간 계약이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무언가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창조 기록인 창세기 1:1에서 2:3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는 위대한 왕입니다. 그는 그의 백성에게 좋은 것을 제공합니다. 그는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고, 등등, 그는 자신의 충실함과 선함에 대한 증인입니다. 나중에, 요한 계시록 1:5에서, 예수는 충실한 증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본성과 선함에 대한 충실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본성을 분명히 표현합니다. 창세기 1:1에서 2:3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제국을 발전시킨 헷족은 그와 비슷한 것을 분명히 표현하는

형태를 발전시켰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권력 관계이며, 그래서 그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그를 알지 못하지만 제국을 가지고 자신들과 권력 관계를 만든 헷족은 그 권력 관계를 분명히 표현하고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요소들을 가진 법적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직장이 있다면 상사가 있습니다. 상사는 당신의 종주권자입니다.

사장은 당신에게 좋은 것들을 제공합니다. 직장에 필요한 것들, 칸막이, 컴퓨터, 차, 뭐든지요. 사장은 특정한 요구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은 당신이 직장에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한다면, 당신은 축복을 받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직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급여 인상을 받습니다. 당신은 직위 인상을 받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합의에 따라 요구된 것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저주를 받습니다. 당신은 급여를 삭감당합니다. 당신은 강등당합니다.

당신은 해고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인이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에서 2:3까지, 그리고 이 모든 신성한 언약들은 하나님과 언약의 당사자들 사이의 권력 관계를 분명히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히타이트인들은 그런 종류의 관계를 아주 잘 보여주는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아담 언약에 대한 다른 증거는 어떨까요? 글썄요, 노아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주님은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방주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의 동사와 언약 관용어는 노아 언약에 사용됩니다.

창세기 17장에도 같은 것이 사용되었고, 그 이유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Nathan berit 과 Hakim Berit입니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 언약을 주고 언약을 성립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전은 이러한 동사에 대한 다양한 정의나 설명 중에서 이러한 관용어 동사가 첫 번째 동사인 Nathan은 give를 의미할 수 있고, 두 번째 동사인 cause to stand를 의미할 수 있다고 알려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동사에 대한 한 가지 이해는 put into effect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구절에서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언약이 존재하고 주님이 이제 그것을 실행하려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특히 창세기 17장에서 관련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7장이 창세기 15장과 다른 언약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나은 관점은 창세기 15장에서 주님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창세기 15:18에서 히브리어 관용어로 언약을 끊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 그는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이것은 처음 들었을 때처럼 이상하지 않습니다.

집을 팔기 위해 계약서에 서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산 사람이 이사를 와서 완전히 나가기 전까지 실제로 계약이 발효되기까지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혀 이상한 개념이 아닙니다.

왜 이런 용어가 노아 언약에서 사용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글썄요, 그 의미는, 저는 여기서 제 노트를 전부 다 읽지는 않을 테고, 여기 이 동사들의 약간 다른 번역이 있습니다. 저도 사용했지만, 거의 같은 일을 수행합니다. 언약을 수행하거나, 효력을 발생시키고, 그것을 주고, 효력을 발생시키고, 계속 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용어가 노아 언약에서 사용되었을까요? 덤브렐은 그의 책에서 우리가 이런 동사의 사용을 언급했다는 것을 알아챘는데, 그것은 그들이

재확인하고 있는 선제 언약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진실에 매우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림의 일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 자료에서 이 동사를 사용한 것은 주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언약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는 이미 존재하는 언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성서에서 언약을 맺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qarat 입니다. 베리트 , 또는 언약을 맺는 것.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읽은 의식에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물을 반으로 자르게 하시고 그가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그 관용어의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글쎄요, 그런 종류의 절단과 그런 종류의 통로, 고대 세계에서 일어났던 일은 종주권자가 가신과 조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동물들은 창세기 15장에서 읽은 것처럼 잘리고 따로 떼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신은 조각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은, 글쎄요, 제가 가신으로서 조약을 어긴다면, 이 동물들에게 닥친 것과 같은 운명이 저에게도 닥칠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 34장은 정확히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공통 은혜 언약에는 그런 저주가 없습니다.

즉, 특별 은혜 언약입니다. 만약 당신이 충분히 불순종한다면, 당신은 그 언약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모세 언약은 아마도 가장 분명한 예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은 일반 은혜 언약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죽을 것이고, 우리 모두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매우 나쁜 사람이 될 수 있고, 주님께서 당신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온갖 기준을 깨뜨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은 노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창세기 9장에서 주님께서 마침내 이것을

행하시거나, 이 언약을 실행하시거나, 재확인하시거나, 갱신하시는 다른 관용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용어는 여기에서 언약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언약에서 누군가가 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글쎄요, 아담 언약에 대한 선지자들의 증거는 어때요? 우리는 호세아 6:7 과 그 모호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에서도 예레미야는 해와 달과 별의 빛을 조절하는 주님의 법령에 대해 말합니다. 그 법령이라는 용어는 기술적인 용어이고, 여기서 *terminus technicus* 입니다. 왜냐하면 라틴어와 독일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당신이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때때로 그 용어들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언약의 영역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고, 우리는 그것을 모세 언약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에서, 아주 명확하게, 주님께서는 우연히, 예레미야의 이 구절들에서 다윗 언약에 대한 그의 신실함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약 너희가 낮과 나의 언약을 깨고 밤과 나의 언약을 깨서 낮과 밤이 정해진 때에 오지 않게 한다면, 나는 다윗에게 충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여, 내가 낮과 밤과 하늘과 땅의 법도와 나의 언약을 세우지 아니하였거든. 이러한 진술과 그들이 사용하는 문구, 낮과 밤,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의 빛남 등은 이 경우 언약 용어로 창세기 1장을 확실히 가리키는 듯합니다.

그래서 , 우리는 아담의 언약이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불리지 않는다고 이전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 엄격할 것이라면, 그래야 하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이러한 진술은 창조된 질서가 본질적으로 언약적이었다는 것을 매우 시사합니다.



글쎄요, 신약의 증거는 어때요? 글쎄요, 물론 두 번째 아담으로서의 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새 언약의 중재자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두 번째 아담이고 선지자라면, 그는 아버지로부터 듣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대로 행하는데, 이것들은 아담과 명백히 유사합니다.

그는 확실히 신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아마도 신이 그에게 하라고 한 대로 했습니다. 신은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누가의 족보는 뒤로 거슬러 올라가 아담을 신의 첫째 아들로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이런 여러 면에서 예수와 평행하다면, 그가 언약의 중재자로서 예수와 평행하다는 것도 말이 됩니다. 또한, 그것에 대해서도 언급하겠습니다. 곧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의 범주를 이해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큰 범주가 있는데, 확실히 구약과 예수와 신약에 있습니다. 언약 중재자 선지자라고 불러야 할 범주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언약을 중재하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담이 첫 번째이고, 노아가 그 다음이고, 아브람이 그 다음에 오고, 그 다음에 모세와 다윗이 오고, 그리고 물론 신약에서 예수가 새롭고 마지막 신-인간 언약의 중재자로 나옵니다. 구약에서 읽은 다른 선지자들은 언약 소송 메신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세 언약에서 실제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표현되고 그들이 따라야 할 율법을 가진 첫 번째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 선지자들, 주님은 그들을 범법자로 고소하기 위해 선지자들을 일으키십니다. 저는 그것이 때때로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했듯이,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지만요.

그래서 아마도, 보통 교회에서 예언은 격려, 어쩌면 교훈을 위한 것일 겁니다. 하지만 다시 말해서, 책망도 교화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 범주들이 성경 속 선지자들과 그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생각할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담 언약에 대한 증거로 돌아가서, 글썄요, 우리가 예수를 두 번째 아담으로 본다면, 우리는 또한 그의 사역의 결과도 봅니다.

그것은 새로운 인류로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영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됨에 따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미 미리 맛보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위기,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새로운 하늘과 땅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만약 새로운 인류와 새로운 하늘과 땅이 새로운 언약을 통해, 두 번째 아담의 중재를 통해 생산된다면, 그것은 첫 번째 아담도 언약의 중재자라는 것을 주장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언약의 인류학은 어떨까요? 창세기 1장은 인간 본성에 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글썄요, 창세기 1장 26절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말합니다. 형상과 모양이라는 용어는, 아시다시피, 우리는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자료를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tselem 과 demuth라는 용어는 둘 다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미하는 것은 공식적인 윤곽입니다. 둘 다 조각상에 사용되며, 분명히 원본과 닮도록 의도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왕, 고대 근동에도 같은 용어가 등장합니다. 왕은 자신, 이미지 또는 유사성으로 만들어진 조각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모세 시대나 그 이후의 고대 세계에서 창세기 1장 26절을 읽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과 같은 형태로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창세기 5:1~3은 이런 것들과 평행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자신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드신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130년을 살았을 때, 그는 자신의 모습, 자신의

형상, 같은 말로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습니다. 분명히 아담의 아들은 아담과 같은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는 머리, 어깨, 몸통, 팔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조금 후에 이것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영광스러운 신현으로 나타나서 어느 정도 묘사될 때마다 그는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순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글썄, 하지만 신은 영이시다. 그렇다고 해서 형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한 생명을 주는 영이시다.

그는 또한 전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 모순되지 않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탐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는 어떨까요? 그것은 히브리 시에서 우리를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히브리 시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때때로 당신은 주석가나 성경 연구 저자들이 창세기 1장을 시로 말하는 것을 읽을 것입니다.

그건 아주 비유적인 의미에서만 사실입니다. 히브리 시는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장르입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일몰은 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글썄요, 창세기 1장은 그런 의미에서 시적이라고 할 수 있죠. 분명히 고상한 산문이에요. 훌륭하게 구성되어 있죠.

하지만 기술적인 의미에서 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기 영어로만 된 다이어그램을 보면, 번역하면, 신이 아담, 지구인을 창조했습니다.

아담은 땅이나 토양을 의미합니다. 그는 아담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A, B, C는 평행한 요소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창조했습니다.

두 번째 줄에서 그는 창조했습니다. 세 번째 줄에서 그는 창조했습니다. 신은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직접 목적어는 아담, 즉 남자입니다.

두 번째 줄에서, 신이 그를 창조했습니다. 세 번째 줄에서, 신이 그들을 창조했습니다. 글썬요, C 요소가 남았습니다.

저는 이것들이 평행한 요소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소수를 사용하지만, 그것들은 정확히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히브리 시를 도식화하는 관례일 뿐입니다. 세 번째 줄은 그가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처리했습니다. 음, 남성과 여성은 어떨까요? 세 번째 줄에 다른 C와 평행을 이루는 C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남성과 여성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초대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자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글썬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남자와 여자 모두 그 형상을 보여줍니다.

즉, 우리가 이야기한 용어에서 용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본적으로 개요를 보여줍니다. 이제, 아마도 다른 많은 것들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을 것입니다. 확실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소통하고 이해하는 능력, 즉,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스리는 대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그들은 가신으로서 지구를 다스릴 것입니다. 가신 왕과 여왕.

그러나 남성과 여성의 역할의 차이는 여기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암시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는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지만,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들의 역할에 대해 말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음 구절인 창세기 1장 28절에서 역할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가득 채우고 정복하고, 물고기를 다스리고, 등등을 말씀하실 때입니다.

이제, 역할 차이가 거기에 다루어졌나요? 글썄요, 작은 방식으로요. 너무 작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실을 맺을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물학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고, 낳고, 낳는 데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역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전부입니다. 아마도 임신의 더 진행된 단계에서는 그 여성이 땅을 정복하는 면에서 전에 했을지도 모르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추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초기 장들에서 증거의 한계에 대해 우리 자신에게 매우 엄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등주의적 관점에서 평등을 보고 싶어합니다. 이 초기 장들에는 사람들이 결혼에서 계층적 관계나 보완적 관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싶어하는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초기 자료에서 많은 모호함과 불확실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신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약에서 온갖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가장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학자들은 거기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의견이 다릅니다.

하지만 저는 지적 정직성과 성실성을 위해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때때로 제가 가르치는 Gordon Conwell의 예를 들어, Gordon Conwell의 이사들이 Haddon Robinson과 Alan Matthews, Alice Matthews에게 Gordon Conwell을 관리하라는 명령을 Haddon과 Alice에게 주었다고 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Haddon Robinson은 한동안 Gordon Conwell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앨리스 매튜스가 그의 학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듣지 못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글썄요, 만약 당신이 위원들이 고든 콘웰을 관리하고, 고든 콘웰을 다스리라는 위임을 그들에게 주었다고만 들었다면, 창세기 1:28에 따르면, 그들의 역할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 생각에 답은, 물론 당신은 모를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있다면, 그 경우 한 명은 대통령이었고 한 명은 학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더 높은 직책을 맡았고,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128장, 그것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창세기 128장에서 왕의 기능이 두 사람 모두에게 할당되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둘 다 통치할 거야. 문화적 기능은 둘 다에게 할당돼. 그들은 땅을 정복할 거야.

역할 차별화는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아버지과 어머니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은 우리가 말했듯이 창세기 1장에서 언약 관계 측면에서 배운 내용을 확장한 것으로 오랫동안 생각되고 이해되어 왔으며, 제 생각에는 옳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아담, 즉 땅의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심어 그곳에서 일하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일하다, avad (여기 A 지점)는 레위인이 성막에서 하는 봉사에 사용되었고

, shamar (B 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적 기능의 함축적 의미가 이해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에덴이 최초의 성전이였다는 생각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성전을 건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대 세계의 사원은 단순히 신이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했습니다. 수메르어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더 오래된 형태는 문자 그대로 큰 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원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는 단지 그것을 음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단어, hekal 이 궁전이나 사원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왕이고, 궁전, hekal 이 있고 , 큰 집이 있습니다. 신은 신이고, 큰 집, 사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점은 고대 세계의 사원이 거주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사실상 사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원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돌 블록과 들보 등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거주지입니다 . 우리는 신, 성령이 거주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정원에서 제사장 역할이나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표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일하고 지키는 것 너머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이 머물렀던 장소, 그가 거주했던 장소였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저는 한때 신의 원래 계획이 두 명의 벌거벗은 채식주의자와 함께 정원에서 어울리는 것이라고 적힌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신이 거기에 거주했다는 징후가 있고 , 반드시 그가 항상 거기에 보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역할은 예언적입니다. 그들은 신으로부터 듣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예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장했듯이 아담은 언약의 중재자입니다. 아담의 언약이 있다면 아담은 그것의 중재자입니다.

그리고 중재자로서, 그는 불행히도 모든 의미와 함께 그의 모든 자손에 대한 그 언약의 중재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죄가 한 사람을 통해 세상에 들어왔고, 죽음이 죄를 통해 들어왔듯이,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아담 시대부터 모세 시대까지 통치했던 새 언약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에 대해 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는 언약의 중재자의 죄 때문에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간략하게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두 번째 아담의 유사점을 논의할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아담,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글쎄요, 마지막 아담이 언약의 중재자였다면, 첫 번째 아담이 그 전에 언약의 중재자였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Imago Dei*의 윤리적 또는 도덕적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규정과 우리가 이야기했던 언약 위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점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그의 아내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죄가 없었습니다.

16세기와 1700년대의 청교도 작가가 이 구조를 만들었는데, 꽤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타락하기 전의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있었고, 우리는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고, 불행히도 그는 계속하지 않았습니다. 타락 후의 인간은 확실히 죄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었고, 저는 그것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는데,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토마스 보스턴의 의도가 어떤 면에서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지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그가 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는 살면서 항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령과 함께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어쨌든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 모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사람, 우리가 그를 볼 때 기대하는 사람, 우리는 그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분명히 죄를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글썄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그가 한 것처럼 동사원형을 나누고 싶지 않지만, 로마서 7장에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는 영이 없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묘사하고 있으며, 그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4장 24절에서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읽습니다.

글썄요, 신과 함께 걷는다는 건 꽤 강력한 진술이에요. 그는 분명 선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가 죄를 짓지 않는 때도 있었어요.

창세기 7장에서 주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네 온 집안이 방주로 들어가라. 나는 이 세대에서 네가 나보다 의롭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다시 노아는 의로웠다.

그가 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가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주제이지만,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의로움, 의로움의 기본 정의는 기준에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중요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뿐이므로, 구약이나 신약에서 어떤 사람이 의롭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와 행위의 기준에 따라, 그가 살거나 . . .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의롭다고 불릴 때, 그는 의롭다고 불립니다. 즉, 어느 정도까지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모습이었던 뜻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그런 특성들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는 선함도 있고, 지혜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인내심도 있고, 충실함도 있고, 등등. 그러니까, 요점은 타락 이후이지만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은 그들 안에 선함도 있을 수 있었고, 그들에 대한 의로움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즉, 그들이 사는 방식에서 항상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추시고 그의 비를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내리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의롭고 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은 힘들겠지만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는 일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말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는 그 말을 이어가지만, 아시다시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것을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와 불의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것은 그들이 항상 죄를 지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야 합니다. 아담 언약의 더 큰 관점으로

돌아가면, 아담 언약을 구조적으로 보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2천년 조약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 옛 멘토인 메러디스 클라인은 프레임워크 가설이라고 불리는 것을 만들어냈고, 저는 그것이 창세기 1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른 방식으로 보는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거스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거스틴은 이 날들의 균형을 감지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비판적 학자 SR 드라이버는 이것을 보고 형상과 총만함의 날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클라인만이 더 깊이 파고들어 여기에 권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 3일을 창조된 영역으로, 그 다음 3일을 창조된 왕들, 즉 그 영역을 다스릴 것들이 창조된 날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임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낮을 다스리기 위해 더 큰 빛을 창조하셨고, 밤을 다스리기 위해 더 작은 빛을 창조하셨다는 네 번째 날에 대해 읽습니다. 그리고 물론, 땅을 다스리기 위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생물과 새에게도 같은 것을 암시하거나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새가 공기를 지배한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권위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있습니다. 우연히도, 이 구절에서 권위에 대한 다른 표시가 있는데, 이것은 고대 근동의 유대인 학자인 움베르토 카수토가 그의 책, *Biblical and Oriental Studies* 에서 얼마 전에 언급 했듯이, 창세기 1장과 사실 성경에서 많은 명령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령 성취 패턴은 이런 식이며, 고대 근동 비문에서도 발견됩니다.

3천년과 2천년.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백부장이 그에게 왔을 때, 그는 그의 하인이 치유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서 그를 치유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아니, 나는 당신을 내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지만, 그저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종이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권위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가라고 하면 그는 가고, 명령이 성취됩니다. 이 사람에게 오라고 하면 그는 오고, 명령이 성취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것을 하고, 그는 그것을 하고, 성취를 명령합니다. 패턴의 이유 또는 그것이 보여주려는 것은 명령을 내리는 사람의 권위가 그 사람이 명령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순종되어야 하고, 말한 대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이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의 틀 묘사에서 보는 것 외에도, 우리는 많은 권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신에 대한 것이고, 그가 모든 권위의 근원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완벽하게 말이 됩니다. 그래서 신성한 권위, 모든 권위는 신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권위를 인간에게도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짐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적 권위의 문제이며, 우리는 이것을 신약에서 요한이 말했듯이 나중에 봅니다. 세례자 요한이 그의 제자들이 불평할 때, 야, 봐, 모두가, 그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오지 않고, 예수에게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글썄요, 사람은 하늘에서 주어진 것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통치하는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 외에는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이지만, 그것은 분명히 표현된 성경적 원리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에 대한 것입니다.

글쎄요, 그때 그 날들이 무엇이든, 당연히 질문은, 글쎄요, 그 날들은 무엇일까요? 24시간의 날들인가요, 아니면 무엇일까요? 오래된 질문입니다. 그 날들이 무엇이든, 그것들은 틀 가설에 의해서도 창조의 진행을 명령하고, 그것에 구조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서의 존재는 질서를 만들어낸 권위를 암시하거나 표현합니다.

권위는 새로운 창조에도 근본적입니다. 요한은 그를 영접한 모든 사람,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요한복음과 로마서 13장의 그리스어는 같은 용어이고, 따라서 같은 방식으로 올바르게 번역되었습니다.

글쎄요, 알겠어요. 하지만 하루의 해석은 어떨까요? 창세기 1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글쎄요, 문자 그대로의 24시간 하루는 분명히 텍스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킬과 델리치는 19세기에 고등 비평의 부상을 목격한 두 명의 독일 학자로, 기본적으로 구약성경을 해체하고, 신이 그런 일을 했다고 믿지 않고, 모세가 있었는지조차 의심하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구약성경 전체를 믿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주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글쎄요, 날은 어떨까요? 그들의 제안은 새로 형성된 지구가 더 빨리 회전하기 시작하면서 날이 더 짧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이상한 제안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거기에 있는 제안 중 하나입니다. 지구가 축을 중심으로 처음 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실제로 우리의 모래시계로 측정할 수 없지만, 처음에는 더 느렸고 태양계가 완성될 때까지 현재의 속도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처음 3일과 마지막 3일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를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3일은 태양의 일출과 일몰에 의해 조절되었습니다.

이것은 엔트로피와 정말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물이 에너지를 잃고 느려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우주조차도 감지할 수 있을 만큼 더 느린 속도로 확장되고 있지만, 어쨌든 이것이 그들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글썬요, 하지만 태양이 넷째 날에 창조되었다는 것은 어떨까요? 글썬요, 처음 3일은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3일 동안의 빛은 아직 창조되지 않은 태양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신이 창조한 빛에 의해 발생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글썬요, 다른 시대에 대한 견해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제안 중 일부는 지질학이 지구의 매우 오래된 연대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지질학이 가리키는 것과 일치하도록 창세기 1장의 시대에 대한 설명을 내놓아야 했기 때문에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을 따라가다 보면, 독일 학자 게르하르트 폰 라트를 볼 수 있는데, 그는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여기서 말하는 것이 전적으로 그리고 정확히 그대로 사실로 유지되도록 의도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어디에도 텍스트가 애매하거나 상징적이거나 비유적으로 시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폰 라트는 문자 그대로의 여섯째 날 창조가 있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것이 텍스트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텍스트를 만든 사제 작가의 방식입니다. 모세가 아니라, 기원전 570년경에 쓴 사제 작가가 그것을 본 방식입니다. 그가 그것을 묘사하고 싶어했던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에서 고등 비평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주제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견해였습니다. SR 드라이버는 그 구절이 또한 프리스트리 작가가 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24시간 하루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견해는 자유주의 학자가 아니었지만, GH 펨버가 제시했는데, 그는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볼 갭 이론과 관련하여 이것을 제시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스코필드가 성경과 해리 리머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24시간 해석을 긍정합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일-시대 또는 일-시대 해석으로, 종종 시편 90편에 호소합니다.

당신 눈에 천 년은 지나간 어제나 밤의 한 순간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접근 방식은 우리가 말했듯이, 성경적 설명을 지질학적 기록과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Driver조차도 1886년에 썼듯이 이런 것들을 약간은 비유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관점에서 Priestly 작가의 관점으로 옮겨갔고, 그것은 24시간의 하루라는 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그는 저녁과 아침이 문자 그대로의 하루를 암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화자가 자신의 하루를 기간의 비유적 표현으로 의미했다는 가정은 현재 작가가 생각하듯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이것이 단지 개요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다양한 주요 견해에 대한 스케치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해결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클라인이 다루는 방식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 분 후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은 인간과 비유되지 않는 신의 날들입니다.

어거스틴은 실제로 어거스틴보다 약간 먼저 이 기원을 제안했습니다. 그의 책에서 주요한 것들, 첫 번째 것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인간적인 비유가 없는 신의 날들이라면, 글썄요,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길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창세기 1장의 날들이 그림 같은 날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접근 방식에 따르면, 날에 대한 공지 사항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상을

창조한 방법을 게시하신 연속적인 날들을 나타냅니다. 그는 환상이나 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이를 행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견해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지질 기록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24시간 하루의 문제를 피하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설명에는 그것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없으며, 낮과 밤의 표현이 그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른 날에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학자들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되면 원하는 것을 텍스트에 그냥 삽입할 수 있는 좋은 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고수하는 것이 확신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릴 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엄격하게 증거를 고수해야 합니다.

글쎄요, 여기서 또 다른 접근 방식은 이 오늘의 사업이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문학적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창조를 단 일주일 만에 묘사함으로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너무 강력해서 6일 만에 그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글쎄요, 그 용어가 문자 그대로의 날을 의미하는 것 같다는 반대 의견은 어때요? 그리고 키드너는 그것이 영감을 받은 용법이므로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글쎄요, 신이 거짓말을 한다는 반대 의견은 어때요? 아니요,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우리에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다루는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Gordon Wenham 은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두 권으로 된 단어 성경 주석 세트입니다. 우연히 그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창세기 해설을 사려고 한다면, 여전히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6일 계획이 창조에 내장된 체계를



강조하기 위해 그 장에서 사용된 여러 수단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다른 수단으로는 반복되는 공식, *inclusio* 등이 있습니다.

글쎄요, 다른 문학 기법이 있다는 사실이 반드시 이것이 문학 기법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확실히 모호한 해석이며,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학자들이 모두 채택했습니다. 우리는 스코필드와 다른 사람들과 관련하여 갭 이론을 이전에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갭 이론은 6개의 24시간 하루로 끝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방식은, 글쎄요, 창세기 1-1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읽을 때, 그게 전부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세상은 루시퍼에게 넘겨졌고, 그는 에덴의 광물 동산에 위치한 하나님의 성전 예배를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그는 도대체 어디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글쎄요, 에스겔 28-13장에서 티레 왕자에 대한 진술을 읽었 는데, 그것은 오랫동안 생각되어 왔고, 제 생각에는 옳습니다. 더 높고 사악한 권세인 사탄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사탄은 "너는 에덴에 있었어. 너는 그룹이었어. 죄가 네게서 발견되기 전에 너는 완벽했고, 불타는 돌들 사이를 걸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덴의 광물 정원과 루시퍼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 여기입니다. 글쎄요, 루시퍼의 고귀한 상태는 그에게 너무 컸고, 그는 타락했고,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에스겔 28장에서 이 인물에게 심판이 내려지는 것을 보지만, 이것은 또한 확장되어, 글쎄요, 그것은 그와 그의 동맹자들에게, 그리고 지구에도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일종의 파괴를 당했고 엉망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룡과 화석층의 추악함이 죄에 대한 심판의 증거이며 지구에 전해진 심판이라고 주장합니다. 글쎄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기원전 4000년경에, 신은 624시간의 하루로 지구를 재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가진 것은 창세기 1:1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완벽한 창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틈이 있습니다. 사탄의 반역과 땅에 임하는 심판이 있고, 그 결과로 창세기 1:2에서 땅은 오랫동안 형태가 없고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땅을 재조정합니다.

이사야 45장에 호소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토후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 생각에 그 반응은, 글썄요, 하느님은 토후에서 지구를 창조하지 않았지만, 그가 그렇게 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저는 사물이 과정의 일부로서 형태가 없고 공허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가 그것을 그렇게 창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땅이 형태가 없고 공허했다는 진술이 땅이 형태가 없고 공허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히브리어 사용 측면에서는 당신이 기대하는 번역이 될 리가 없습니다. 되는 것에 대해 사용되는 다른 히브리어 관용어가 있으며, 그것은 창세기 1:2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그것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글썄요, 좋아요, 그건 그저 그날에 대한 리뷰일 뿐입니다. 우리가 창조의 역동성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저는 이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서 암시한 3권짜리 성경 신학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매우 겸손하게 주요 패러다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것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전반에 걸쳐 언약 창조에서 일하시는 방식을 분명히 표현하는 패러다임이기 때문입니다. 글썄요, 그는 제가 예언적 역동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우리는 성령이 현존함을 압니다. 하나님의 영이 깊은 곳 위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는 말씀이 창조에 관여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에 관여하는 영과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시작하는 곳입니다. 창조 기록과 세례 기록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유사점이 있습니다.

물 위에 떠다니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물에서 나오는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영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혀 관련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몇 년 전에 이것에 대해 생각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자메이카 킹스턴에 있는 캐리비안 대학원 신학대학 학장인 저희 졸업생 중 한 분으로부터 1월에 그곳에 가서 구약 신학을 가르치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여름에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상상하실 수 있겠지만, 1월에 자메이카에서 초대가 왔을 때 성령의 확신이 제게 임했고, 저는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밤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80도였고, 저는 햇볕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의 노트를 훑어보곤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서, 여기서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생각했습니다. 메러디스 클라인은 그의 글에서 성령을 언약의 증인으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이 더 나은 증거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그것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성육신한 말씀의 사역을 패러다임으로 삼고, 그것과 유사한 일이 성육신 이전의 말씀에서 일어났다고 제안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모든 것이 성육신 이전의 말씀을 통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말씀을 통해, 육신의 말씀 안에서, 그 경우에 성령이 육신의 말씀을 통해 일하여 왕국의 역사와 권능의 말씀을 산출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우연히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이해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은 영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고,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영입니다. 요한복음 6:63. 그가 귀신을 쫓아낸 것도 영에 의한 것이었고, 그가 병을 고친 것도 영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병 고침은 영의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하신 아들에게서 본 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것은 바로 영입니다. 우연히, 제가 영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렇게 표현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말한다면, 당신은 그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아무도 사람의 영처럼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탐구합니다.

저는 성령이 어떤 의미에서 가장 친밀한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 죄를 지으면, 마가복음 3장에서 읽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들은 "음, 귀신의 왕자 덕분이예요"라고 말하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사람이 지은 모든 죄는, 심지어 성부나 성자를 모독하는 죄도 지을 수 있지만, 성령에 대해 지은 죄는 이 시대나 다가올 시대에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것이 여기의 패러다임입니다. 그것은 아들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이 왕국의 것들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제안은 창조 기록에서 성령이 육신 이전의 말씀을 통해 일하여 그 왕국의 말씀과 일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으라를 읽을 때, 그 말씀은 영이고, 영이었다고 제안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의 말씀은 영입니다. 대문자 S입니다. 그래서 창조 기록에서 성령은 육신 이전의 아들을 통해 일하여 창조를 한 말씀을 만들어냈습니다.

성령은 그런 의미에서 일을 이루신 분입니다. 글쎄요, 그 기초 위에서 우리는 타락 전과 타락 후를 살펴보며 이것을 제안합니다. 아버지는 성령이 육신을 입으신 말씀을 통해 일하게 하여 왕국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 육신을 입은 말씀이 이 제안의 기초였습니다. 아버지는 영이 육신을 입은 말씀을 통해 일하여 왕국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영을 보내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 일하여 왕국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옛 언약의 기간 동안, 그것이 작동하던 때, 또는 그 전에, 노아나 아브라함과 함께, 아버지와 아들이 선지자를 통해 성령이 왕국의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간단한 패러다임은 말이 되는 듯합니다. 성육신하신 말씀, 교회, 그리고 저는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에 대한 부분이 꽤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것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글쎄요, 창조 당시에 일어났던 역동성인가요?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징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매우 일관적이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강의를 마무리할 주요 패러다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선지자적 인물을 통해 그의 영으로 일하여 그의 적들과 싸우고 패배시킵니다. 하지만 물론 그것은 타락 이후에만 있을 것입니다. 타락 전에는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때로는 처음에는 한 사람과 한 가족만, 노아의 경우처럼,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몇 명 더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언약은 언약의

파트너, 가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립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럴 때가 되면, 그는 그들 가운데 성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원래 언약에서는 에덴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 언약에서는 장막과 성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새 언약에서는 우리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것은 제프리 니하우스 박사가 성경 신학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션 1, 아담의 언약, 1부입니다.